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1호

I	<p>국산 팔레놉시스·심비디움 품종·계통 평가회 개최</p>	
II	<p>딸기 신품종 및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p>	
III	<p>중국 수출 쌀 가공공장 2개소 추가등록 완료</p>	
IV	<p>국산 감 베트남 수출길 열려</p>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1호 2020. 2. 29(금)

‘20.1.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한 6.9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4.4% 104백만불	  9.6% 410백만불	  19.3% 179백만불
+ 닭고기, 유자차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라면 - 껌, 음료, 맥주, 커피조제품	+ 굴 - 김, 참치, 넙치, 고등어, 삼치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홍콩 33백만불(1.8%)	 미국 97백만불(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연계 가공식품 판촉(~3.31) 	 ASEAN 154백만불(△3.9%) 
 껌(66%), 닭고기(62%)  음료(△21%), 참치(△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쌀가공식품, 인삼류 판촉(~3.31) ▶ 태국 THE MALL 등 연계 종합식품 판촉(~3.26) 	 EU 45백만불(△4.9%) 
 새송이버섯(18%), 라면(33%)  비스킷(△13%), 참치(△8%)		 일본 149백만불(△18.4%) 
 라면(18%), 전복(7%)  껌(△33%), 참치(△10%)		 중국 99백만불(△22.5%) 
 조제분유(26%), 라면(16%)  김(△48%), 설탕(△8%)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1.31



“ 닭고기 ”

- ◇ 주력 수출국인 베트남 내 닭고기 소비 지속 증가
- ◇ 간편식 제품의 북미 온라인몰 진출에 대한 시장 확대

7,164천불(44.8%)

▶ 주요 수출국 : 베트남(6,072천불, 66.4% ↑), 일본(367, 123.8), 미국(290, 116.9)

“ 조제분유 ”

- ◇ 베트남 내 유아용 식품 안전성 인식 향상에 따른 고가 한국산 프리미엄 조제분유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 : 중국(3,232천불, 26.3% ↑), 베트남(1,281, 16.3)

4,739천불(14.4%)



“ 라면 ”

- ◇ 신제품 출시와 주요 수출시장 내 유통망 확대, 할랄 인증 획득

37,383천불(9.5%)

▶ 주요 수출국 : 중국(7,600천불, 16.2% ↑), 미국(4,242, 11.8), 일본(3,237, 18.4)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국산 팔레놉시스·심비디움 품종·계통 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국산 난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자 품평회를 개최했다. 품평회는 2월 3일 aT화훼 공판장에서 색과 모양이 다양한 국산 팔레놉시스(호접란)·심비디움 40여 품종·계통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은 중앙의 입술 꽃잎이 일반 품종보다 큰 새로운 형태의 소형종으로, 국내 및 수출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시범 수출 결과, 묘 부패가 적고 꽃이 일찍 피는 등 수송성과 시장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발한 '아리아'는 화사한 분홍계통의 소형종이다. 잎의 길이가 짧아 재배·관리가 쉽고, 꽃대가 잘 올라오며 꽃수도 많이 달려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절화용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심비디움 '샤이니핑크'는 밝고 연한 분홍빛 꽃으로 꽃대가 굵고 곧아 수출용으로 사랑받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심비디움 '람바다'는 유럽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절화 전용 품종이다. 짙은 주황색의 희소성 있는 꽃이 특징이며, 꽃대가 길고 수송성이 우수해 해외 구매상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종묘를 대체하고 국산 품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팔레놉시스(러블리엔젤)

팔레놉시스(아리아)

심비디움(샤이니핑크)

심비디움(람바다)

딸기 신품종 및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국산 딸기 품종 다양화를 위해 10개 시군에서 3헥타르 규모의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해 딸기 가공, 생식, 수출, 체험 농장 등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월 21일 시군 담당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 품종 딸기의 특성을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선보인 딸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미소향', '고슬' 등 7품종이다. 이 품종 들은 당도·경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농산물 유통 전문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일부는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소향'은 생육이 왕성하고 생산능력이 뛰어나며 봄철 고온에도 과실이 단단해 가공에 알맞다. '고슬'은 7월 아주심기 후 9월 추석에 수확할 수 있는 가을-겨울 재배 품종으로 단단하고 흰가루병에 강하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품종 다양화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종이 이른 시기에 정착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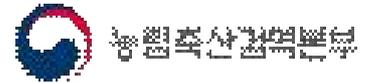
딸기(미소향)



딸기(고슬)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중국 수출 쌀 가공공장 2개소 추가등록 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5.10월 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이래 '16년부터 등록된 6개 가공 공장을 통해 쌀을 수출해 왔다. 검역본부는 '18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쌀 가공 공장 2개소(해남1, 청주1)에 대해 추가 등록을 위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의 승인 절차를 그 동안 협의해 왔으며, '20.2.18.(화) 중국 측이 추가 등록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총 8개 쌀가공 공장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가공 공장에서 가공 후 소독 처리하고 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 쌀가공공장 등록현황(8개소) : 군산 · 서천 · 이천 · 철원 · 청주(2) · 해남(2)

국산 감 베트남 수출길 열려

검역본부는 베트남 측이 '15.7월 위험분석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수출이 중단되었던 국산 감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베트남 측과 검역협상을 해온 결과 '19.11월에 식물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어 '20.1.8일자로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검역 조건으로는 수출 선과장 · 과수원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검사를 3회 받아야 하며, 베트남 측이 지정한 해충 3종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저온 또는 MB훈증) 처리하는 조건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매년 4월 말까지 검역본부 관할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선과장 등록 및 재배재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검역요건 교육 완료



검역본부는 '20.1.13.~2.6. 기간 중 '19년도에 협상이 타결되어 제정 고시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을 전국 19개소 중국 수출선과장 관리책임자들과 226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재배 농가들이 관리하고 방제해야 할 병해충정보를 정리한 병해충 종합 관리 책자도 제작 · 배부하였으며 한중 합동 수출 검역을 통한 중국으로의 파프리카 첫 수출을 위해 중국검역관 초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